

보도시점 2025. 8. 19.(화) 09:00 배포 2025. 8. 19.(화) 09:00

**동포청, 한글학교 공동체(학교·교사·학생·학부모) 역량강화를
위한 순회연수, 미국 북캘리포니아에서 개최**
- 8월 14~16일 실리콘밸리한국학교(쿠퍼티노), 뉴비전한국학교(밀피타스),
다솜한국학교(서니베일) 순회연수에 300여 명 참가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8월 14~16일 미국 북캘리포니아에서 ‘주말한국학교 역량강화 순회연수’를 개최했다.
 -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(교장 최미영)와의 협업으로 실리콘밸리한국학교(쿠퍼티노), 뉴비전한국학교(밀피타스), 다솜한국학교(서니베일)를 순회하며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한글학교 교장·교사 150여 명을 비롯해 학생 70명과 학부모 80명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다.
 - 이번 연수는 지난 4월 애틀랜타 개최 이후 미국에서 두 번째 열린 ‘한글학교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’로 한글학교 교사·학생·학부모·학교 등 차세대 정체성 교육의 산실인 한글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- 이번 순회연수는 기존 교사 연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, 교사를 위한 집중연수 외에도, 학생 대상 시범수업, 학부모 대상 정체성 강연, 학교 운영자 대상 간담회, 1:1 맞춤형 교사 대상 집중 코칭까지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.
 - 연수의 핵심주제는 ‘AI 디지털 시대의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’으로,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최신 교수법과 교실 운영 전략을 공유하고, 인공지능 시대에도 한글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지

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.

- 14일에는 실리콘밸리한국학교(쿠퍼티노)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과 가정에서 효과적인 한국어·역사문화 교육 방법에 대한 두 개의 강의(「그림과 이미지로 배우는 한국어와 우리 역사」(김차명 광명서초등학교 교사), 「웃음과 감동이 있는 한국어 수업」(강용철 경희여자중학교 교사))가 열렸다.
- 또한 14일과 15일 오전에는 다솜한국학교에서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설계와 교육자료 활용에 대한 심도깊은 1:1 맞춤형 코칭이 진행됐다.
- 15일에는 뉴비전한국학교(밀피타스)에서 「광복 80주년, 한국을 빛낸 디아스포라(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)」를 주제로 학부모 대상 강연이 진행되었다.
 - 이어서 현재 한국에서 정규 교사로 재직중인 김차명 광명서초 교사와 강용철 경희여자중 국어 교사가 현지 재외동포 학생(4-6학년 25명, 6-8학년 36명)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시범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수업 경험을, 교사들에게는 시범 수업 참관을 통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.
- 16일에는 다솜한국학교(서니베일)에서 교장 및 운영진 대상 간담회와 교사 대상 집중연수(한국어로 만나는 정체성 교육과 미래, 인물을 통한 독립운동 이야기, AI와 에듀테크로 함께 배우는 초등한국어 등)가 강연과 연계한 실습 수업 형태로 진행됐다.
 - 교장 및 운영진 대상 간담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. 교사 대상 집중연수는 북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가진 대형 대면 교사 연수로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.

- 연수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“재외동포로서 아이들을 한글학교에 보내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얼과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그 중요성을 되새긴 뜻깊은 시간”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.
- 또한 연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“이번 연수는 재외동포청이 현지 학교에 직접 찾아와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, 학교 운영자 등 한글학교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연수 방식이다.”고 평가하며 “앞으로도 동 형식의 연수가 계속적으로 개최되기”를 희망했다.
-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현지 한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사들에게는 실제 활용 가능한 교수법을 안내하고,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, 학부모 대상 특강을 통해 자녀의 정체성 교육 방향을 공유하는 등 한글학교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※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주말한국학교 역량강화 순회연수 사진 4부 끝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과장	이희경	032-585-3207
	동포교육문화지원과	담당자	주무관	권주희	032-585-3211

